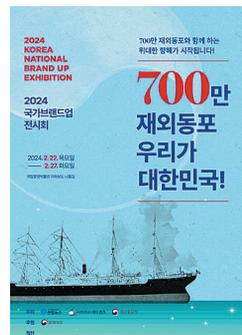




특집 _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① 인천 함박마을서 고려인 민생 파악
② 필리핀·태국 동포 민생현장 방문

정책 돋보기 _ 재외동포청, 올해 한글학교 지원 대폭 확대
법정부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확정

이슈 & 화제 _ 유도 코치 안창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키워낼 것"
'성난 사람들' 이성진 "한국계로 살아온 경험, 작품에 녹아들어"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이 성공하려면

지난 1월 3일 외교부에서 제22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외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재외동포청장, 국무조정실·법무부·통일부·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 소속 정부위원, 재외동포협력센터장, 재외동포를 포함한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제1차 재외동포 정책 기본계획안’ (2024~2028년)이 보고됐다. 해당 안건은 재외동포 관련 모든 세부 사항을 총망라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으로, 재외동포청의 출범 취지에도 합당한 학위논문 수준의 역할이었다.

회의 참석 위원들은 ‘재외동포 정책 강화 체제 확립’,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 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 기여’ 등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해 나갈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계획을 승인하고 적극적 지원을 표했다.

또한 우리 동포사회가 미·일·중·러 등 주변국과 오대양 육대주에 흩어져 있는 개별성을 고려해 우선 해결 과제를 최대한 파악·수렴할 것과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조직·인력·예산 등 정책 수단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런 의미 있는 회의에 민간위원으로 참석한 전직 외무공무원으로서 느낀 바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대한민국이 잘돼야 한다. 1948년 8월 15일 해방 이후 불과 70년 만에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탈바꿈했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외교·안보는 물론 정치·경



김경근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제·사회·문화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동포들이 낯설고 물신 땅에서 코리아로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으려면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격이 계속 신장돼야 한다. “친정집이 잘되면 시집에서도 더 나은 대접을 받는다”는 이야기와 맞물려 있다.

둘째, 정책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여·야 합의로 2023년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정책 내용 하나 하나가 중요하지만, 모두를 실현할 시간·예산 역량 등은 제한적이다. 위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들을 기본형, 미완형, 진행형, 미래형으로 구분한 후 정책 수립·진행·평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이행 상황을 지속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은 정부의 의지나 비전 제시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재외동포를 정책 수혜자로만 보지 말고 정책 완결의 소중한 파트너로 인정해 이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고 현장 의견 청취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또한 재외동포들도 동포정책에 대한 평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넷째, 한인회, 한글학교, 비즈니스 등 분야별로 네트워크화된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할 환경조성 단계를 뛰어넘어 궁극적으로는 글로벌시대 한국인들이 인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모든 동포를 따듯하게 보듬는 것뿐만 아니라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유지와 내국인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이 진지하게 추진돼야 한다.





- 02 창을 열며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이 성공하려면
김경근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민간위원(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 04 특집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① 인천 함박마을서 고려인 민생 파악
② 필리핀·태국 동포 민생현장 방문
- 06 정책 돋보기 재외동포청, 올해 한글학교 지원 대폭 확대
법정부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확정
- 08 이슈 & 화제 유도 코치 안창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키워낼 것"
'성난 사람들' 이성진 "한국계로 살아온 경험, 작품에 녹아들어"
- 10 한민족 공감 미국 하원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등록법안' 발의
군 입영 신청 외국 영주권자 20년간 8천명 돌파
- 12 글로벌 코리아인 성 김 전(前) 주한미국대사, '2024년 이민자 영웅상' 수상
'미국 상원의원 도전' 한인 앤디 김, 여론조사 선두 유지
미국 LA 임시 경찰 국장에 도미닉 최... 첫 한인 수장
- 14 인터뷰 유선희 하와이 마우이 한인회장 "산불피해 극복 위해 분투 중"
- 15 주목! 차세대 샘 조 미국 시애틀청년회장 "한국과 경제 연결 확대할 것"
- 16 지구촌 통신원 영국 교육부·옥스퍼드대, 10대 한국어 '열공 현상' 공동 연구
베트남 사격·태권도·양궁에서도 한국인 지도자들 맹활약
- 18 뉴스 속으로 고려인 화가 문 빅토르, 광주 고려인마을을 정착 외
- 20 문화유산 경북 경주 양동마을과 옥산서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명소
- 22 OKA 뉴스 카카오톡 채팅 활용한 민원 상담 서비스 개시 외
- 24 동포 캘린더 중국 선양서 '무오 독립선언' 105주년 기념식 열려 외
- 25 기고문 차세대에게 한국어, 한국문화를 심어주는 일이 왜 중요한가
박영희 남미대륙한글학교협의회장
- 26 재외동포청 공지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 모집

발행인: 이기철
 발행처: 재외동포청
 주소: (우22009)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36층
 전화: +82-32-585-3100, www.oka.go.kr
 인스타그램: @overseas_koreans_agency
 페이스북: facebook.com/oka202365
 유튜브: @OKAKOREA
 기획·편집: 재외동포청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은 외교부의 외청으로 전 세계 재외 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인천 함박마을서 고려인 민생 파악

“소외 동포 보듬기 적극 추진… 고려인 맞춤형 정책 펼칠 것”



1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1월 30일 고려인 집단 거주지인 인천 시 연수구 연수1동 소재 함박마을을 방문해 민생 현황을 파악했다. 고려인 동포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이 청장은 이날 대한고려인협회(회장 노 알렉산드르, 한국명 노 송달) 임원 및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고 관심 사안을 청취했다. 대한고려인협회 관계자는 고려인 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개선과 조기 정착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등 권의 신장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재외동포청은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외국 교과서에 수록하는 사업과 재외동포들의 모국 기여와 공헌 내용을 국내 교과서에 수록해 국내의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이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소외 동포 보듬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고려인 동포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어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 등 한국어 교육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2018년 결성된 대한고려인협회는 고려인만으로 구성됐으며(전



2

국에 지회 설치), 국내 거주 고려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함박마을은 지난 2015년부터 외국인 주민 수가 급격히 증가해 현재 전체 주민 1만2천여명 가운데 60%가량인 8천여명이 고려인이다. **▶**

1.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왼쪽에서 6번째)이 1월 30일 인천시 연수구 연수1동 함박마을에서 고려인들과 간담회를 한 뒤 노 알렉산드르 대한고려인협회 회장(왼쪽에서 5번째) 등 참석자들과 함께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 노 알렉산드르 대한고려인협회 회장(왼쪽에서 3번째) 등 일행이 함박마을을 방문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왼쪽에서 4번째)을 환영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필리핀·태국 동포 민생현장 방문

동포정책 설명·한국 발전상 알리기 소개·재외선거 참여 당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1월 22~23일 이틀간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한인타운 등 한인 동포들의 민생현장을 방문해 정부의 동포정책을 설명하고 동포들이 호소하는 애로사항도 경청했다.

이 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활기를 되찾기 위해 분투 중인 동포들을 격려하고 한인타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포간담회를 열었다.

1월 23일 마닐라의 주필리핀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윤만영 필리핀한인총연합회장, 김대중 민주평통 필리핀지회장 등 주요 동포 단체장 19명이 참석했다.

이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동포사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외동포청의 출범 의의와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의 외국 교과서 수록 사업을 통해 거주국에서 차세대의 정체성 함양과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동포 정책을 소개했다. 아울러 국내 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사항을 수록해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지 동포들, 한인회관 건립 지원·장학사업 확대 등 요청

필리핀 동포들은 한인회관 건립 지원, 동포 장학사업 확대, 차세대 연수 등 안보 교육 강화, 한-필리핀 경제인 대회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 청장은 현지 한글학교 교사들과의 간담회도 열어 교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거주국 교과서에 대한민국 발전상이 수록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청장은 다양한 동포들을 만나 제22대 총선 재외선거에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청장은 이어 1월 24~26일 사흘간은 태국 방콕을 방문해 재태국한인회와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방콕지회 관계자들, 현지 한글학교 교사 등 다양한 계층의 동포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차세대 재외동포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이라는 재외동포정책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차세대동포에게 교육하고, 이를 거주국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임을 강조하면서 교사 및 유력 동포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참여 교사와 동포들은 이 청장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부모 대상 한글 교육 지원 및 다문화 자녀 대상 정체성 교육, 한국의 발전상 관련 나라별 상황에 맞는 한글학교 교육용 콘텐츠 제공 및 강연회 개최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재외동포청 출범 의의와 ‘재외동포청 출범 100일 로드맵’ 등 재외동포 정책 설명이 있었고 태국 동포사회의 건의 사항도 나왔다. 



1



2

1.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왼쪽)이 1월 2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국제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앞줄 왼쪽에서 6번째)이 1월 24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동포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재외동포청, 올해 한글학교 지원 대폭 확대

정체성 함양 강화 위해 운영비 26% · 교사연수 예산 45% 증액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차세대 정체성 함양의 산실 역할을 하는 전 세계 1천460여개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을 올해 대폭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한글학교 기능 강화, 교육 환경 개선, 교사 사기 진작을 위한 운영비와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예산을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증액했다.

운영비는 지난해 141억에서 올해 177억3천200만원으로 약 27%가 늘어났다. 교사 연수 예산도 18억5천600만원에서 26억8천500만원으로 약 45% 증가해 어려움 호소가 많았던 교육 환경 및 교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운영비 증가로 교사 봉사료의 현실화가 가능해졌고, 교사 연수도 온오프라인 병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게 돼 교육 활성화와 교사 전문성 제고가 탄력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운영이 중단됐다가 재개교하는 학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현지 연수 지원, 온라인 학위 취득 및 교사 양성 과정도 확대해 추진한다. 한글학교 지원 확대를 지속해 실시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내 지원체제도 구축한다.

이기철 청장 “한글학교와 교사들 중요한 역할 수행”

재외동포청은 앞서 지난 1월 8~14일 전 세계 47개국에서 206명의 한글학교 교사를 국내로 초청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재외동포 차세대의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 제고를 위한

‘한국 알리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교사들은 토론회에서 ▲한인회·한글학교협의회 등 단체 간 협력을 통한 지역 교육 당국과의 소통 창구 마련 ▲학부모-교사 협의회 등 현지 교육 커뮤니티 참여를 통한 한국어·한국의 발전상 관련 수업 개설 유도 ▲현지 교육 관계자 대상 한국 발전상 세미나 개최 등에 앞장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업을 개설하고, 현지 교과서에서 한국 관련 오류 발견 시 재외동포청에 전달하는 소통 채널을 갖추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핵심 목표 중 하나인 차세대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 제고를 위해 한글학교와 교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한글학교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은 우리 정부가 차세대 재외동포의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증액으로 한글학교의 운영 환경이 개선되고, 교사들의 전문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에 관한 교육도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참]**

1. 올해 1월 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3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개회식에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 '2023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에 참석한 교사들이 올해 1월 13일 청와대를 둘러본 뒤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범정부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확정

정체성 함양과 동포 보호·지원 강화 등 추진

재외동포청은 1월 30일 재외동포정책 위원회(위원장 외교부 장관) 심의를 거쳐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4~2028년)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외교부·재외동포청·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 등 11개 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12월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와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국내외 재외동포와 국민, 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전 세계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 사회의 대변자를 비전으로 명시했다.

5대 정책 목표·14개 중점 과제·99개 세부 과제로 구성

5대 정책 목표로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에 기여하는 동포를 제시했고, 14개 중점 과제와 99개 세부 과제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해 동포사회와 협력해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거주국에 알리기 위한 협력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위해 거주국 교과서 등 다양한 매체에 한국 발전상을 수록해 국제적 신뢰를 제고하고 한인들의 자긍심과 정체성 유지를 돕는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해외에서 위난(危難) 상황 시 동포들에게 신속하게 구호품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재외동포 및 국내 체류 동포 등의 생활 현장을 찾아 꼼꼼히 살피고 따뜻하게 보듬는 민생우선 정책도 추진한다.



또 동포사회와 연계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펼쳐 범정부 차원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도 적극 부응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편리한 동포 생활을 위해 해외에서의 민원 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재외동포 인증센터'를 구축해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신원을 확인하고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도 포함했다.

정책위원회에 참가한 민간위원들은 "지난해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동포사회의 숙원이었기에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소외되는 동포가 없도록 꼼꼼히 챙긴 기본계획이라 5년간 충실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이라며 이견 없이 계획을 승인했다.

재외동포청,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해 이행 예정

재외동포청은 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올해는 범국가적 차원의 재외동포정책을 처음 수립한 뜻깊은 해"라고 강조하며 "기본계획 확정으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700만 재외동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든든한 울타리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사회의 대변자로서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장\]](#)

1. 재외동포청이 재외한인학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8일 서울 고려대 하나스퀘어 멀티미디어실에서 개최한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공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에서 6번째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다.
2. 지난해 12월 8일 고려대에서 열린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공개 토론회'의 모습

유도 코치 안창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키워낼 것”

“재일동포 3세에게 태극마크 달아준 모국에 감사”

“재일동포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된 8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국가대표는 은퇴했지만 이제는 코치로서 후배들이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2020 도쿄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안창림 경북 체육회 소속 유도 코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모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만큼 이제는 운동하는 많은 재일동포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 넣어 주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재외동포청의 홍보 영상에도 출연해 재일동포의 삶과 국가대표로 봉사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일본 교토에서 나고 자란 재일동포 3세인 안 코치는 가라테 관장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6세 때 가라테와 유도에 입문했다. 이후 가라테가 적성에 맞지 않아 유도에 전념했고, 유도 명문 쓰쿠바대 2학년이었던 2013년 전일본학생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

우승 뒤 대학 감독이 일본 국가대표로 뛰려면 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이를 뿌리치고 2014년 고국으로 건너와 그해 용인대에 편입학했다.

그는 “한국 국적이다 보니 일본 대표 선발전에 나갈 수 없었고, 1년에 한두 개의 시합만 뛸 수 있어서 시합에 목말랐다”며 “할아버지 때부터 ‘조선징’이라는 차별을 받으면서도 국적을 지켜왔기에 일본 귀화는 생각도 안 했고 오히려 한국에서의 선수 생활에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포 후배에게 모국 경험 전수… “한민족 소속감 커져”

안 코치는 한국에 온 그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3위에 올라 태극마크를 달았다. 그해 러시아 세계유도대회와 미국 마이애미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세계랭킹 1위에 올랐고, 2018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하는 등 국가대표 간판스타로 주목받았다.

그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16강 탈락했지만



1



2

2020 도쿄 올림픽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했고 2021년 국가대표에서 은퇴했다.

그는 “목표했던 금메달을 못 땀지만 대신할 수 있는 후배를 양성하는 또 다른 목표에 도전하고 있다”며 “재일동포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코치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처음 모국에 왔을 때를 돌아보며 “일본에서 차별받을 때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맞서왔지만, 모국에서 차별받을 때는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 힘들었다”며 “단일 민족주의가 강해 타민족에 대한 배타주의가 강한 일본에서 살아온 재일동포에 대해 조금 더 이해심을 갖고 대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본과 한국 양쪽에 속하면서도 양쪽에 속하기 어려운 ‘경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온 그는 “10년간 모국 생활을 하면서 한민족으로서의 소속감과 뿌리 의식이 더 강해졌다”며 “더 많은 재일동포 차세대들이 모국을 경험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창**

1. 재일동포 3세 안창림 유도 코치

2. 안창림 코치(오른쪽 끝)가 지난해 경북체육회 소속으로 2023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입상한 재일동포 출신 선수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난 사람들’ 이성진

“한국계로 살아온 경험, 작품에 녹아들어”

에미상 수상 기념 기자간담회... 스티븐 연 “이민자 현실 직접 경험”

“‘성난 사람들’이 세계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린 이유는 각 캐릭터 안에서 (시청자가) 자기 모습의 일부를 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이성진 감독)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원제 BEEF)을 연출한 한국계 미국인 이성진 감독과 주연 배우인 스티븐 연(한국 이름 연상엽)이 2월 2일 화상 기자간담회를 통해 에미상 수상에 대한 소감과 작품을 둘러싼 뒷이야기를 털어놨다.

이 감독은 “굉장히 솔직하고 마음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어두운 부분을 조명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며 “서로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작품을 만들려 했다”고 말했다.

‘성난 사람들’은 TV 시리즈를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 중에선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프라임타임 에미상 올해 시상식(1월 15일)에서 미니시리즈·TV영화(Limited Or Anthology Series Or Movie) 부문 작품상과 감독상, 작가상, 남녀 주연상 등 8관왕에 올랐다.

앞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작품상과 남녀 주연상을 받고, 크리틱스초이스 시상식에선 작품상과 남녀 조연상에 더해 여우조연상(마리아 벨로)까지 휩쓸었다.

블랙 코미디 ‘성난 사람들’에서 각각 감독·주연 말아

연출과 각본을 담당한 이 감독은 에미상 감독상과 작가상을 받았고, 주연인 스티븐 연은 세 시상식에서 모두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이 감독은 수상을 기대했는지 묻는 말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 쪽에는 항상 나를 괴롭히는 자기 의심을 그리고 다른 한쪽에 고베풀린 나르시시즘(자기도취)을 그리면 중간에 나오는 교집합이 예술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저도 양쪽을 오간다”고 운을 떼었다. 이어 “남들이 내 예술에 관심이나 있을까? 싶다가도 세상 모든 상



1



2

을 다 탈 거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며 “(‘성난 사람들’은) 그 중간쯤에 도달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스티븐 연 역시 “(수상을) 예상하는 건 쉽지 않았다. 희망할 뿐”이라며 “결과적으로 가장 깊이 느낀 건 감사함이었다. 진실이라고 믿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뜨겁게 반응해줬기 때문”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성난 사람들’은 운전 도중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한 주인공 대니(스티븐 연)와 에이미(앨리 워)의 다툼이 극단적 싸움으로 치달는 과정을 그린 블랙 코미디 장르다. 인물들의 내면에 쌓인 울분과 감정을 코믹하면서도 진중하게 담아내 호평을 받았다.

이 작품에서 대니는 한국계 이민자의 자녀라는 설정으로 한식당에서 국을 먹고 가족과 한국어로 대화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런 장면들에는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한 이 감독의 경험이 녹아 있다.

이 감독은 “예전에는 한인 교회 같은 요소들을 스태프에 이해시키려면 자세히 설명해야 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추가로 설명할 것이 별로 없었고 오히려 스태프가 저보다 더 잘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한국계로 살아온 경험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묻는 말에 “비록 전면에 내세우진 않았어도 서사에 녹아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앞으로 만들 작품 속에도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장]**

1. 지난 1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피콕 극장에서 열린 제75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로 미니시리즈 부문 감독상과 작가상을 받은 이성진 감독(오른쪽)과 남우주연상을 받은 스티븐 연이 트로피를 들고 포즈 취하고 있다.(EPA 제공)

2. 드라마 ‘성난 사람들’의 한 장면(넷플릭스 제공)

미국 하원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등록법안’ 발의

북미 간 상봉 추진 때 활용… 양측 간 직접 대화도 명시



북한과 미국 간 이산가족 상봉 추진에 대비해 미국 국무부가 한국계 미국인 중에서 북한에 가족을 둔 사람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2월 1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하원의 제니퍼 웨스턴(민주·버지니아) 의원과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전날 이런 내용의 이산가족 등록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무장관이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하는 한국계 미국인 가족의 명단을 파악해 관리하고, 향후 이 같은 행사가 이뤄질 경우 정보 제공 등에 해당 명단을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에 대한 정보도 명단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무부에 100만달러 규모의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했다.

법안은 또 국무장관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북미 직접 대화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한국 정부와도 상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법안이 통과된 후 1년 이내에 국무부는 이산가족 상봉 요청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포함해 이산가족 현황 보고서를 하원 외교위에 제출해야 하며, 매년 관련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앞서 미국 의회에서는 지난 2022년 재미 한인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이 가결 처리된 바 있으나, 실제 이산가족 상봉 추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남북은 2000년 이후 20회가 넘는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했지만, 한국 국적이 아닌 미주 한인은 참가 자격에서 제외돼 왔다.

웨스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한인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기회를 기다려왔고, 한인 2세, 3세들도 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안고 성장했다”며 “이산가족 등록법은 가족을 한자리에 모으기 위한 미국과 북한의 협력을 장려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 1. 미국 하원에서 제니퍼 웨스턴(민주·버지니아) 의원과 함께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등록법안’ 발의한 한국계 미국인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의원
- 2. 2018년 8월 25일 북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장면

군 입영 신청 외국 영주권자 20년간 8천명 돌파

병무청 “재외한인 사회서 모국에 대한 자긍심 커진 때문”

외국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을 신청한 사례가 지난 20년간 8천 건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병무청에 따르면 영주권자 입영 희망 제도가 2004년 처음 시행된 이후 작년 말까지 모두 8천53명이 신청했다.

첫해 38명에 그쳤던 신청자는 2020년 704명, 2021년 711명, 2022년 678명, 2023년 523명 등을 기록했다. 해외에서 진행하던 학업이나 생계를 내려놓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원입대하는 청년들이 매년 수백 명을 기록하는 것이다.

외국 영주권을 받아 외국에 체류하면 38세가 되는 해에 제2국민권 판정을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전까진 병역 의무가 살아있다. 과거엔 해외에 체류하는 영주권자가 입영을 원하면 반드시 입국해 지방병무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10여년 전부터는 온라인으로 입영 신청을 할 수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는 한국어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영주권자를 위해 서류작성 방법 등이 영문으로도 안내돼 있다.

육군훈련소는 신병 교육훈련에 앞서 영주권자 군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해 언어와 군 시설 사용, 병영생활 이해 등을 돕고 있다. 전역 신고 시 병무청장 명의로 ‘자원병역 이행 명예증서’도 수여한다.



2024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2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 검사장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시력 측정 등 신체검사를 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미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상대로 온라인 병역 이행 설명회도 시작했다. 올해는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 한인들을 위한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병무청은 “영주권자 입영 희망이 꾸준히 늘어난 건 K-팝 등 우리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져 해외 한인사회에서 모국에 대한 자긍심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당히 병역을 이행하는 대한의 청년들이 자랑스럽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창**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 신청 현황

단위: 명

연도	2010년 이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인원	844	221	280	328	456	604	646	676	685	697	704	711	678	523	8,053

자료: 병무청



성 김 전(前) 주한미국대사, '2024년 이민자 영웅상' 수상 한미우호협회 선정... 평생 업적상에 장태한 UC 리버사이드 교수

성 김 전(前) 주한미국대사가 미국 내 비영리단체인 한미우호협회가 주관하는 '2024년 이민자 영웅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협회 측이 1월 25일(현지시간) 밝혔다.

김 전 대사는 국무부 한국과장, 한국·필리핀·인도네시아 대사,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및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 등을 역임하고 작년 연말에 공직에서 물러났다.

협회는 "김 전 대사는 미국의 성공적 외교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왔다"며 "그는 미주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한인들의 공직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협회는 또 2024년 평생 업적상 수상자로 장태한 UC 리버사이드 대학 교수를 선정했다. 장 교수는 1992년 발생한 로스앤젤레스 폭동을 연구하고 캘리포니아 한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업적을 세웠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협회는 2000년부터 한인 이민자로서 미국의 발전에 공헌하고 재미동포의 품격을 높인 이민자들을 선정해 상을 수여해왔다. 시상식은 오는 3월 15일 애틀랜타에서 열린다.

'미국 상원의원 도전' 한인 앤디 김, 여론조사 선두 유지 2위는 뉴저지 주지사 부인... 양측 격차 23%p→12%p

한국계 정치인 최초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 자리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민주·뉴저지)이 당내에서 거센 추격을 받고 있지만 여론조사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페어리 디킨슨 대학이 뉴저지주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2%의 지지율로 선두 자리를 지켰다. 2위는 20%의 지지율을 기록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테미 머피 후보였다.

김 의원은 머피 후보를 12%포인트 차로 앞섰지만, 이전 여론조사에 비해 격차가 적지 않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시민단체 '엔드 시티즌스 유나이티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의 지지율은 42%, 머피



후보의 지지율은 19%였다. 23%포인트에 달했던 지지율 격차가 3개월여 만에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셈이다.

민주당의 연방 상원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뉴저지 프라이머리는 4개월 후인 오는 6월 4일 실시된다. 현지 언론은 김 의원과 머피 후보의 격차가 줄어든 이유로 남편인 머피 주지사의 후광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머피 주지사는 지난해에만 540억 달러(약 71조8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주 정부의 예산에 의존해야 하는 지역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머피 주지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올해 1월 2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됐고, 오차는 ±4.5%포인트다.



미국 LA 임시 경찰 국장에 도미닉 최... 첫 한인 수장 캐런 배스 LA 시장 “아시아계 최초 역사 썼다”

미국 서부 최대 도시인 로스앤젤레스(LA)의 경찰 수장 자리에 한국계 미국인이 역대 최초로 임명됐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2월 7일(현지시간) LA 경찰국(LAPD)을 이끌 임시 경찰국장에 한국계 도미닉 최(53) 수석 부국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최 임시 국장은 오는 3월 1일 취임한다.

배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신임 임시 국장에 대해 “한국인 이민자의 아들로 LA에서 태어났다”며 “그는 58번째 LA 경찰국장일 뿐만 아니라 최초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이 직책을 맡는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A 경찰국에는 9천여명의 경찰이 소속돼 있다. 다만, 도미닉 최는 정식 국장이 아닌 임시 국장(Interim Chief)을 맡아 6~9개월간 한시적으로 직을 수행하게 된다. 임시 국장은 정식 국장 후보로는 지원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고 LA 경찰위원회는 설명했다.

도미닉 최는 서던캘리포니아대(USC)를 졸업한 뒤 1995년 LA 경찰국에 들어와 다양한 부서의 순찰 업무 등을 수행하며 계급을 차근차근 올렸다. 2019년엔 부국장(Deputy Chief)으로, 2021년 수석 부국장(Assistant Chief)으로 승진했다.

최 임시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기회를 갖게 돼 영광스럽다”며 “이 임명이 엄청난 책임감을 수반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앞서 전임 LA 경찰 국장이었던 마이클 무어는 LA 경찰의 과도한 물리적 사용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1월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



유선희 하와이 마우이 한인회장 “산불피해 극복 위해 분투 중”

최악 산불 휩쓴 지 6개월... “집·사업체 잃은 한인 다수”

“경제적 타격은 물론이고,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도 이곳 한인들은 새 직장이나 새 사업을 찾으려 역경을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주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지상 낙원'으로 불리던 마우이섬을 휩쓸고 지나간 지 6개월이 된 2월 8일(현지시간) 유선희(53) 마우이 한인회장은 언론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8월 8일 마우이에서 발생한 산불은 섬 서부의 유서 깊은 해변 마을 라하이아를 중심으로 건물 2천200여채를 불태웠고, 최소 10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집을 잃은 이재민은 7천여명에 달했다. 현지에 거주 중인 500명 안팎의 한인들 가운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지만, 집이나 사업체를 잃고 큰 타격을 받은 이가 여럿이라고 유 회장은 전했다.

마우이 한인회는 화재 이후 미국 각지의 한인회에서 모아 보내준 성금 약 3천달러(약 400만원)를 3차례에 걸쳐 피해 한인들에게 전달했는데, 총 25가구가 수령했다고 유 회장은 밝혔다. 유 회장은 “평소에 한인회와 교류가 없었거나 마우이에 온 지 얼마 안된 분 중에도 피해를 본 경우가 있다”며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이 전한 한인 피해 사례 중 한 40대 여성은 몇 년간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라하이아의 콘도에 집을 마련해 살고 있었는데, 화재로 이 건물이 모두 불타버렸고 집 안에서 키우던 반려동물들까지 잃었



유선희 마우이 한인회장(왼쪽). 지난해 8월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을 휩쓴 산불로 라하이아 마을의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교통 표지판이 훼손된 모습

다. 당시 남편과 함께 핸드백만 들고 간신히 집에서 빠져나온 이 여성은 현재 당국에서 지원하는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으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관광객 돌아와야 경제 살아나... 많이 찾아주세요”

산불 이후 한층 더 심각해진 주택난도 현지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유 회장은 “섬이라 공간이 한정된 데다 집이 많지 않아 산불이 나기 전부터 주택난이 심했는데 화재 이후 더 심각해졌다”며 “집값과 임차료가 굉장히 올랐고 사람이 살 만한 데는 너무 비싸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매체들은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화재 이재민들의 주택 임차료 상당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일부 주택 소유주들이 악용해 기존에 살던 임차인을 내쫓고 이재민에게 임대해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는데, 유 회장은 “그런 보도

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직접적인 화재 피해를 보지 않았더라도 섬 전체의 관광업이 한동안 중단되고 주민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현지에서 사업이나 자영업업을 하는 한인 대부분이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고 유 회장은 전했다.

마우이 시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그 역시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유 회장은 “시내에 사는 주민들은 산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지만, 물가가 굉장히 오른 데다 경기 침체가 올까 봐 돈을 안 쓰더라”며 “우리 미용실도 한동안 타격이 심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래도 최근 관광객이 많이 돌아오면서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전했다. 유 회장은 “이전처럼 관광객들이 돌아와야 마우이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화재 피해 지역이라는 선입견을 갖지 말고 많이 와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장**

샘 조 미국 시애틀항만청 위원장 “한국과 경제 연결 확대할 것”

112년 만에 탄생한 시애틀항만청 최초 유색인종 이사회 위원장

“미국 서부 물류의 중심인 워싱턴주와 한국의 경제적 연결성을 확대해 양측 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의 시애틀항과 시애틀-타코마국제공항, 시애틀-타코마항을 감독하는 정부 기구인 시애틀항만청 이사회의 샘 조(한국명 조세현) 위원장은 최근 집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한국과 시애틀의 가교 역할을 자임하며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올해 33살인 조 위원장은 시애틀항만청 이사회의 최연소 멤버이자 항만청이 출범한 112년 만에 처음으로 탄생한 유색인종 위원장이다.

그는 오는 4월엔 지역 대표단을 이끌고 서울과 부산, 대전 등을 방문해 한국과 시애틀 간 경제적 연결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과 워싱턴주의 교역량은 중국, 일본, 베트남에 이어 4번째 규모다.

특히 그는 양측 간 우호 증진과 젊은이 간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워싱턴대(UW)와 카이스트 간 학생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그는 시애틀항만청 이사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시애틀항과 부산항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시애틀항과 부산항 항로에 대해 녹색해운항로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인근 오리건주 포틀랜드항으로 들어오던 한국에서 수출된 현대차 물량을 시애틀-타코마항으로 돌려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다. 작년에 이 항구로 들어온 현대차와 기아의 차량이 각각 10만대에 달한다.

33세 최연소 이사회 멤버… 한국어 유창

그의 부모는 1980년대 후반 미국으로 이민했고, 그는 시카고에서 태어나 시애틀에서 자랐지만 한국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한국어도 유창하고 한국인을 만나면 한국 이름도 꼭 알려준다. 집무실 책상에는 거북선 모형도 전시돼 있다.



샘 조 미국 시애틀항만청 위원장

그는 시애틀항만청 이사회 위원으로 선출된 뒤 취임할 때 영어와 한국어 두 개 언어로 선서를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가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은 건 2019년 11월 워싱턴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킹 카운티에서 220만명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처음 이사회 위원으로 당선되면서다.

당시 그는 29살이었고, 7명이 출마한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1등을 한 뒤 결선 투표에서 벨뷰 시장을 지낸 그랜트 디깅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며 돌풍을 일으켰다.

그는 당시 무역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2016년 겨울 한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달걀 파동이 나자 그는 달걀 공급 농장을 수소문해 시애틀항을 통해 한국과 달걀 등을 수출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무역과 물류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작년 1월에는 32살의 나이에 시애틀항만청 이사회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항만청 112년 역사상 유색인종으로는 첫 위원장이었고, 최연소 위원장이었다. 이를 계기로 시애틀타임스 등 지역 언론은 그를 ‘시애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는 시애틀시의 전략기획실 국장도 겸임하며 시애틀의 경제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영국 교육부 · 옥스퍼드대, 10대 한국어 ‘열공 현상’ 공동 연구

조지은 교수 “한국어 배우는 학생들 정서 안정 효과까지”

영국 정부와 옥스퍼드대가 자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와 그 효과에 대한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 옥스퍼드대 조지은 교수는 영국 교육부와 함께 한국어 학습에 관해 올해 7월까지 7개월간 연구하고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영국 10대 학생들이 다른 외국어에는 흥미를 잃어가는 데도 시험과 관계없는 한국어는 스스로 공부하고 이들의 생활 태도까지 좋아지는 ‘현상’에 대해 연구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교육부와의 협력 연구와 관련해 옥스퍼드대의 ‘정책 연구 펠로’(Policy Engagement Fellow)로 선정돼 지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주영한국교육원 등은 기타 파트너로 참여한다. 그는 “비유럽권 외국어 교육 정책과 관련해 교육부와 협력하는 프로젝트의 정책 연구 펠로로 선정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며 “조만간 교육부 본부에서 정책 간담회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외국어 과목의 인기가 줄어드는데 왜 중등졸업시험(GCSE) 과목에도 없고 정부가 투자도 안 하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많아지는지 궁금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K팝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배워보는 게 아니라 학습을 지속한다는 점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의 정서에 긍정적 효과가 나온다는 점에서 더욱 큰 관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우선 한국어를 방과 후 수업으로 개설한 학교 5곳의 교장을 인터뷰했는데 다들 매우 만족스러워했다고 한다. 그는 “한국어를 배우며 소속감을 느끼는 것 같거나, 동네를 한 번도 벗어나 보지 못한 학생이 한국어를 통해 세계와 소통한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1. 한국어 배우는 영국 학생들(주영한국교육원 제공)
2. 강의 중인 조지은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

“아예 전교생에게 가르치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과 달리 영국은 한인 자녀가 거의 없는 상황에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늘어나는 점이 특이하다”며 “정책 보고서를 미국과 영연방 국가와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GCSE에 한국어 정규 과목 편입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옥스퍼드대, 한국어 교원 양성 프로그램 개설

지난해 런던 인근 명문 사립 남학교 위트기프트 스쿨 등 중고등학교 3곳이 정규 과정으로 한국어를 가르쳤고, 배우 엠마 왓슨이 다닌 사립 여학교 헤딩턴 스쿨 등 43곳이 방과 후 수업을 운영했다. 총수강생은 629명이다.

주영한국교육원은 한국어 수업을 희망하는 학교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2년간 강사와 교재 등을 지원하는데 2012년 3곳에서 2021년 45곳, 2023년엔 70곳으로 늘었다.

조 교수는 “영국 청소년이 가치관 형성 시기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많이 접하고 친한파가 돼서 훗날 한국에 도움이 되는 자원으로 성장하도록 지금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영한국교육원은 한국어 교원 양성을 위해 2022년부터 센트럴 랭커셔대에서 정서 안정 과정을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는 옥스퍼드대에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옥스퍼드대에선 장차 테솔(국제 영어 교사 양성 과정)처럼 학위 과정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안 원장은 말했다. **[참]**

최윤정 연합뉴스 영국 런던 특파원

베트남 사격 · 태권도 · 양궁에서도 한국인 지도자들 맹활약

사격 박충건 · 태권도 김길태 · 야구 박효철 · 양궁 박채순



1



2

1. 2023년 10월 17일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축구대표팀 친선경기에서 박항서 전 베트남 감독이 베트남 선수들과 악수하고 있다.
2. 베트남 사격 대표팀의 박충건 감독(왼쪽)과 호앙 쉘안 빈 선수가 2018년 9월 3일 경남 창원시 창원 사격장 내 기자회견장에 나온 모습. 박 감독이 지도한 호앙 쉘안 빈은 2016년 8월 7일 리우올림픽 남자 1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국과 베트남이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한 뒤 경제 부문은 물론 스포츠 분야에서도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수교 이래 양국 관계 증진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인 한국의 기업들이 이끌어왔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고용 창출,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산업화를 이끌면서 베트남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이와는 별도로 스포츠 부문에서 '박항서 축구 매직'의 등장은 한국에 대한 베트남 국민의 친근감을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17년 10월 베트남에 부임한 박 감독은 이듬해 초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에서 베트남팀의 준우승을 이끈 뒤부터 줄곧 신화를 써왔다.

그는 베트남 사상 첫 아시안게임 4강 진출(2018년), 동남아시아(SEA) 게임 축구 우승(2019년), 월드컵 최종예선 진출 등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현지 '국민 영웅' 반열에 올랐다.

박 감독은 지난해 1월 아세안축구연맹(AFF) 미쓰비시컵 결승전을 마지막으로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이후에도 많은 베트남 국민은 5년여간 대표팀을 이끌면서 마법을 보여준 영웅의 업적과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현지 여건 아직 열악해 한국 정부·기업 지원 절실

현재 베트남에는 다른 여러 한국인 체육 지도자들도 진출해 있다. 사격 대표팀의 박충건 감독을 비롯해 태권도의 김길태, 요트

심이섭, 야구 박효철, 장애인태권도 이명식, 양궁 박채순 감독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박 감독은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 남자 10m 공기권총 종목에서 베트남에 역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가져다준 주역이기도 하다.

향후 이들의 리더십이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 주목받는다면 스포츠 교류를 통한 양국 관계 증진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인 지도자들이 마음껏 활약하기에는 이들이 처한 여건이 너무나 열악해 한국 정부나 기업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회 출전은 물론 평상시 훈련 과정에서도 국가대표팀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예산 지원은 여러모로 부족하다. 특히 수십 년간 엘리트 스포츠 육성 정책을 시행해 큰 성과를 거둔 한국과 비교하면 지원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통역 요원을 비롯해 훈련 장비 및 장소도 여의찮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지도자 경우는 박봉으로 간신히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고 한다. 특히 대회나 해외 훈련 참가 시 일부 종목 선수들은 돈이 없어 숙소에 전기밥솥을 놓고 취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체육계 인사는 "태권도 국가대표팀의 경우 CJ베트남이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이 베트남 국가대표팀이나 지도자를 돕는 사례가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김범수 연합뉴스 베트남 하노이 특파원

고려인 화가 문 빅토르, 광주 고려인마을 정착

고려인 화가 문 빅토르(72)가 광주 고려인마을에 정착했다. 광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과 광주를 오가며 대한민국으로 이주를 준비해온 문 화백이 1월 30일 고려인마을 안착했다.

문 화백은 질환 치료를 위해 2022년 광주를 방문한 이후 F4(재외동포) 비자 취득 등 고려인마을 영구 거주를 준비해왔다. 고려인 마을도 조상의 땅 정착과 미술관 건립이라는 문 화백의 꿈을 돕고자 지난해 6월 모금 운동을 전개했다. 마을 지원센터 2층에 작은 전시실과 화실, 주거 공간을 마련해줬다.

문 화백은 “고려인 선조의 강인한 민족정신과 불굴의 개척정신을 이어가도록 그동안 체득한 화법을 후손들에게 전수하겠다”고 말했다.

문 화백은 1951년 카자흐스탄 우수토베 바스토베에서 태어나 1975년 고골 알마티 미술대학을 졸업했다. 1976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미술 활동을 시작한 그는 고려인의 역사, 문화, 인물을 화폭에 담아왔다. 대표작으로 ‘홍범도 장군’, ‘우수리스크 나



화실에서 작업하는 문 빅토르 화백(광주 광산구 제공)

의 할아버지’, ‘1937 고려인 강제 이주 열차’ 등이 있다.

그의 작품은 카자흐스탄의 대통령궁과 국립미술관을 비롯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집트,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다.

몽골한인회, 가스 트럭 폭발 사고 유족·당국에 성금 전달

몽골한인회(회장 박호선)는 최근 몽골에서 발생한 가스 트럭 폭발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3명과 그 가족들을 위해 모금한 성금 5천900만 투그릭(약 2천300만원)을 유족 등에게 전달했다.

몽골한인회에 따르면 1월 24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의 한 교차로에서 액화천연가스(LNG) 60톤을 실은 트럭이 승용차와 충돌했고, 이후 연쇄 폭발이 발생하면서 불이 아파트 단지 등으로 옮겨붙었다. 이 사고로 소방관 3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

한인회는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사고 직후인 1월 25일부터 1주일간 모금 운동에 나섰고, 200여명의 동포가 십시일반 힘을 보탰다. 한인회는 2월 7일 순직 소방관들이 근무한 국가방재청 소속 63번 소방서에서 성금 전달식을 열고 1천500만 투그릭(585만원)을 전달했다. 또 사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국가방재청을 방문해 1천400만 투그릭(546만원) 상당의 응급·구호 물품 등을 건넸다.



가스 트럭 폭발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가족에 위로금을 전달하는 몽골한인회

한인회 관계자는 “지역 사회에서 비극이 일어났을 때 단합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며 “소방관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순직자 가족과 국가방재청에 소액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멕시코 한인 커뮤니티, 멕시코시티 한인타운에 CCTV 기증

멕시코 한인사회의 헌신적 노력과 재외동포청 지원을 바탕으로 멕시코시티 한인타운과 상가에 폐쇄회로(CC)TV가 대거 설치됐다. 멕시코시티 한인 시민경찰대와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1월 25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CCTV 관제센터인 'C5'에서 멕시코 한인 커뮤니티 CCTV 기증식을 열었다.

'지휘·통제·통계·통신·시민지원'의 스페인어 첫 글자를 딴 C5는 한국어로 따지면 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소방 119종합상황실, 각 지방자치단체 CCTV 관제센터 등 기능을 통합해 놓은 콘트롤타워이다. 이번 기증식은 2022년 한국·멕시코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인 시민경찰대에서 구상해 주도한 프로젝트의 결실이다.

자발적 치안 협력 단체인 시민경찰대를 주축으로 한 한인 커뮤니티와 재외동포청이 함께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한인 밀집 지역에 한국산 CCTV를 설치한 뒤 이를 멕시코시티 측에 기증해 운영·유지·보수를 맡기는 게 이번 사업의 골자다.

시민경찰대는 멕시코시티 한인 주요 영업지역인 소나로사(Zona Rosa)와 센트로(Centro)에 총 100대의 CCTV를 달았다고 밝혔다. 한인 자녀들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담당하는 한글학교



1월 25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인 C5에서 열린 멕시코 한인 커뮤니티 CCTV 기증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 3번째부터 장원 멕시코 한인회장, 정상구 멕시코시티 시민경찰대장, 허태완 주멕시코 한국대사, 후안 마누엘 가르시아 오르테곤 멕시코시티 C5 센터장.

인근을 비롯해 총 50곳에 2대씩 설치됐다.

정상구 시민경찰대장은 “이곳 한인들의 성원 덕분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시민경찰대는 한인 동포의 뜨거운 호응 속에 애초 기부 목표 금액(3만5천 달러)을 웃도는 액수(4만2천 달러)를 모금했다고 덧붙였다.

광주고려인마을, 고령 고려인 위한 돌봄센터 개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고려인마을(대표 신조야)은 국내에 체류하는 고령의 고려인을 돕는 ‘노인돌봄센터’를 최근 열었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마을 내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1층을 리모델링해 마련했다.

회의실, 활동실, 조리실, 급식실 등을 갖춘 센터는 한국어 교실, 치매 예방 교육 프로그램, 부업 지원 프로그램, 노인참찬단 등을 운영한다.

취업이 어려운 7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매주 5회 무료 점심 급식을 제공하며, 아침과 저녁 끼니를 거르는 노년층에는 부정기 무료 급식도 지원한다.

신조야 대표는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는 광주시와 광산구 및 개



광주고려인마을의 노인돌봄센터 개소식 모습

인 후원자들에게 감사하다”며 “독립투사의 후손인 고려인 동포 어르신들이 모국의 따뜻함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 양동마을과 옥산서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명소

☐ 화유산의 도시인 경북 경주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명소가 많다. 수백 년 전통의 양동마을에선 지금도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다. 조선시대 성리학자 겸 문신이었던 회재 이언적(1491~1553)을 기리는 옥산서원도 이곳에 자리한다. 이들 두 곳은 모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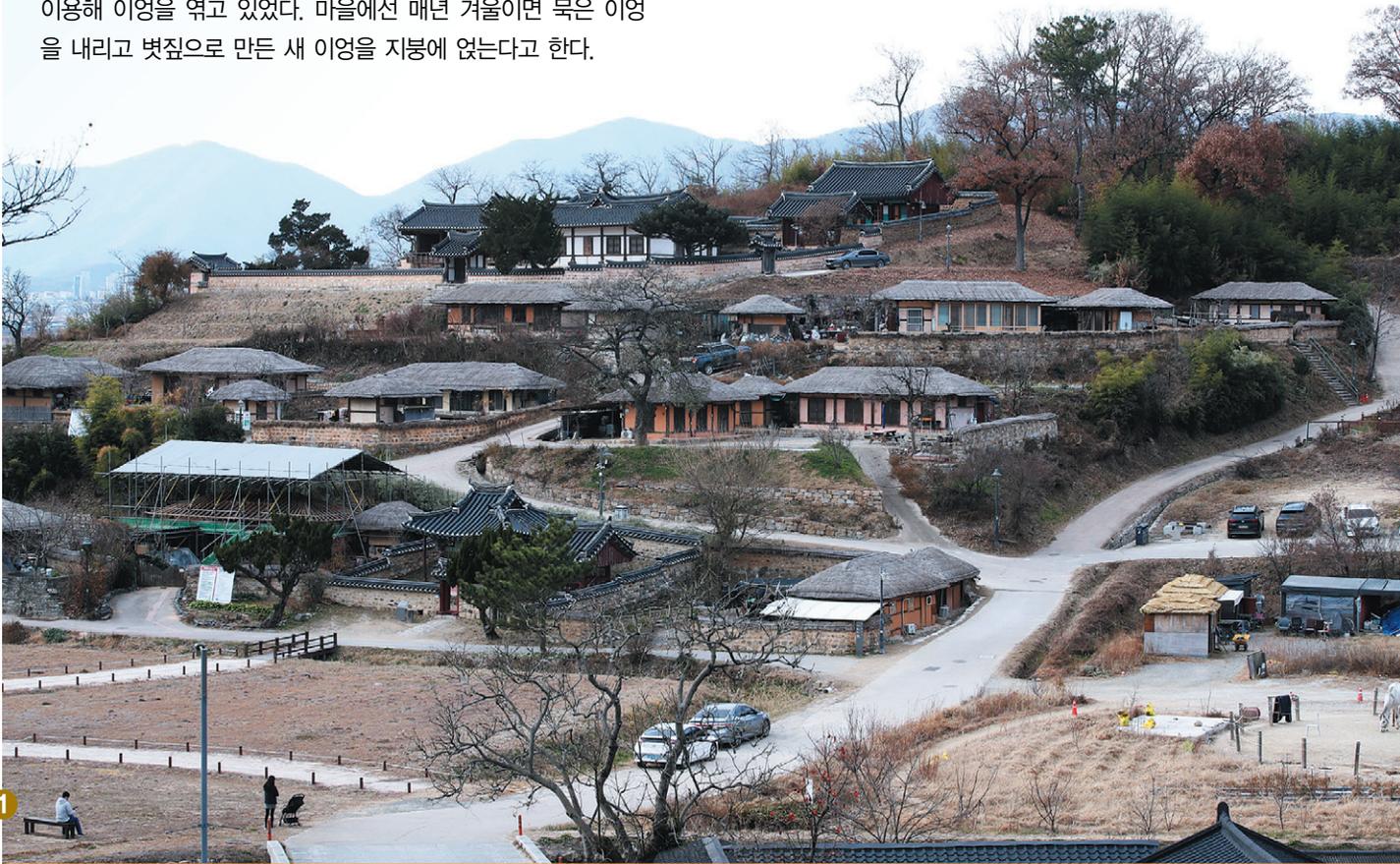
양동마을에는 경주 손씨와 여주 이씨 두 가문이 전통을 이으며 대대로 살고 있다. 규모 있는 고택도 여러 채가 있다. 마을에 들어서면 높은 지대와 낮은 지대에 있는 기와집과 초가집들도 보인다.

정자, 서당까지 포함하면 건물이 165채에 이른다. 마을 입구에서는 인근 산과 하천, 평야가 시야에 함께 들어온다. 이곳을 찾은 날 평지에 꽤 많은 벚짐이 쌓여있었다. 작업자들이 기계를 이용해 이영을 엮고 있었다. 마을에선 매년 겨울이면 묵은 이영을 내리고 벚짐으로 만든 새 이영을 지붕에 엮는다고 한다.

다수가 문화재인 양동마을 가옥·정자

양동마을에선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이나 정자 등이 많다. 가옥에는 주민이 거주하는 만큼 일반 관광객에게 공개되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몇몇 가옥에 사전 연락을 해 취재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돌아봤다. 주민 해설사, 개별 가옥의 주민, 양동마을 운영위원장 등의 설명도 들었다.

보물로 지정된 정자인 관가정(觀稼亭)을 먼저 찾았다. 안내판에는 조선 중종 때 청백리였던 우재 손증돈(1463~1529)의 살림 집이었으며, 관가정은 곡식이 자라는 모습을 본다는 뜻이라고 적혀있다. 건물 입구를 지나자 가지런하게 정돈된 마당과 대청마루가 보였다. 관가정은 풍경이나 가옥 곳곳을 음미하고 탐색할 수 있는 문화공간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2

역시 보물인 무침당도 찾았다. 화재 이연적 종가의 제청(祭廳)이다. 가옥은 화재 이연적의 부친인 이번(1463~1500)이 살던 곳이다. 이번은 손소의 사위로 양동마을에 들어와 뿌리를 내렸다.

대청 벽에는 '左海琴書'(좌해금서·영남에서 선비가 살고 있는 마을이라는 뜻)라고 적힌 편액이 걸려있다. 집권 전 흥선대원군이 썼다고 한다. 단정한 모습의 무침당 마루에서 관조하는 자연의 모습은 또 다른 느낌이었다.

또 다른 보물인 '향단'(香壇)으로 향했다. 입구에서는 가옥의 여러 공간이 하나로 붙어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주민의 협조를 받아 내부에 들어가 살펴보니 입체감과 개방감이 좋았다. 위아래에 있는 사랑채와 행랑채 사이 공간은 꽤 깊이감이 있었고 안채를 떠받치는 석축은 견고해 보였다.

양동마을을 오가다 보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풍경이 달라진다. 이곳 가옥들의 공통점은 현대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 관가정에서 우리를 맞아준 손성훈(손중돈의 19대손) 씨는 "역사가 많은 이 집에 사람이 산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음악을 틀어 둔다"고 말했다.

무침당에 거주하는 이지락(이연적의 17대 종손) 씨는 "이곳은 600여년간 후손들이 노력하며 살아온 공간으로,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말했다. 마을 곳곳을 안내해 준 이지관 양동마을 운영위원

장은 "이 마을은 박제된 유산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성리학자 이연적 기리는 옥산서원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양동마을에서 차로 15분가량 걸리는 인근 옥산서원을 찾았다. 이곳은 주차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길이 인상적이다. 겨울이어서 잎을 떨궜지만, 꽤 수령이 있어 보이는 나무들이 즐지어 서 있다.

서원 옆에는 계곡이 펼쳐져 있는데, 기하학적으로 보이는 검은 너럭바위가 층층이 이어져 있다.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들려 집중하게 되는 순간 마음이 고요해진다. 겨울인데도 서원 입구 왼쪽 굽은 은행나무 아래 땅에는 떨어진 노란 낙엽들이 보였다.

주변의 향나무, 뒷산의 소나무도 서원의 멋진 풍경을 함께 구성하고 있었다. 서원은 일반적으로 지역의 자연풍광이 좋은 곳에 있다. 배향하는 인물도 지역과 연관이 깊다고 한다.

옥산서원은 양동마을에서 태어난 성리학자 이연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곳이다. 이연적의 학문은 퇴계 이황에게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옥산서원 안내판에는 1572년 경주 부윤 이제민이 지방 유림의 뜻에 따라 서원을 세웠다고 적혀 있다.

이곳은 조선 선조 시절에 사액서원이 됐다. 옥산서원은 2019년 '한국의 서원'으로 묶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 중 한 곳이다. 서원은 보통 유식(遊息)공간, 강학(講學)공간, 제향(祭享)공간으로 나뉜다.

옥산서원 정문을 통과하면 2022년 보물로 지정된 무변루(無邊樓)가 나온다. 무변루는 끝이 없는 누각이라는 뜻이다. 아래층은 출입문으로 쓰이는데, 위층에는 대청마루가 있다. 위층에선 서원 정문과 바깥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한국의 서원 건축양식에 누마루 형식이 최초로 도입된 건물이라고 한다. 무변루를 지나면 기숙사가 양쪽에 있고 다음으로 강학 공간인 구인당이 있다. 이지성 옥산서원 운영위원장은 "우리는 현대에도 서원을 지키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참\]](#)



3



4

1. 경주 양동마을 전경
2. 양동마을의 관가정
3. 양동마을 옥산서원의 전경
4. 옥산서원을 안내하는 표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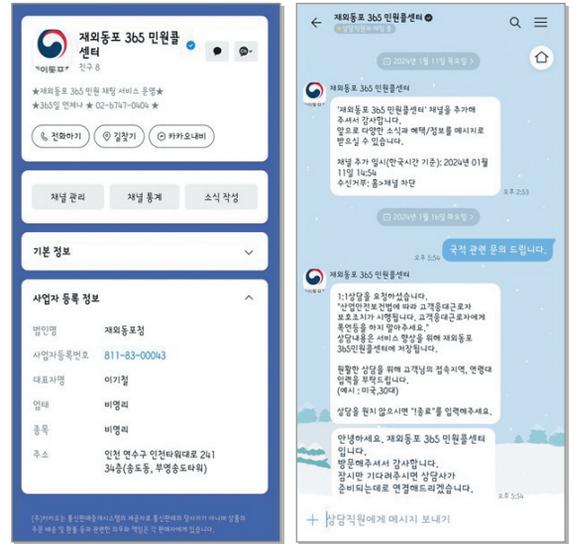
카카오톡 채팅 활용한 민원 상담 서비스 개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가 기존 국제전화 외에도 카카오톡 채팅을 활용해 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동포청은 지난해 6월 5일 서울 광화문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개소하면서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02-6747-0404)를 개통해 365일 24시간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런데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콜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싼 국제전화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

동포청은 채팅 상담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통화(웹콜), 온라인 채팅(웹챗) 등 다양한 채널을 추가할 예정이다.

김연식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재외동포가 통화료 부담 없이 좀 더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의 카카오톡 채팅 상담 서비스 화면

재외동포청 · 연합뉴스 · 반크, ‘2024 국가브랜드업 전시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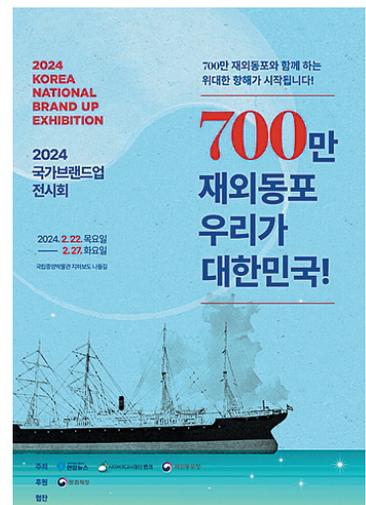
재외동포청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와 공동 주최로 ‘2024 국가브랜드업 전시회’를 2월 22~27일 엿새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지하보도 나들길에서 열었다. 문화재청은 이 행사 후원을 맡았다.

대한민국을 국내외에 제대로 알려 국가의 브랜드를 높이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700만 재외동포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주제 아래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재외동포들이 거주하는 각국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한국 발전상 홍보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으나, 현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정도로 성장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다.

전시회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80여개 나라 중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람객들이 세계 곳곳의 재외동포와 함께 지정하고 싶은 ‘한국의 날’을 살피는 코너도 마련했다.

2월 22일 개막식에 앞서 연합뉴스와 반크가 양성하는 ‘제1기 청년 공공외교 대사 발대식’도 열렸으며, 박기태 반크 단장과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의 특강도 있었다.



‘2024 국가브랜드업 전시회’ 안내 포스터

최영한 차장, 설 맞아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위문

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은 설을 맞아 2월 8일 영주 귀국한 사할린동포를 위문 방문하고 선물을 전달했다. 최 차장은 이날 인천 시 연수구에 있는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을 방문했다.

인천적십자병원 안에 있는 이 복지회관은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1세 중 질병이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1999년 설립됐다. 재외동포청은 돌봄이 필요해 입소한 고령의 70여명에게 설 선물을 전달했다.

최 차장은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첫 설에 동포 어르신들을 뵙게 돼 기쁘다”며 “숙원이었던 사할린동포법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1월 16일 사할린 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2025년부터 영주귀국 대상을 ‘직계 비속 1명’에서 자녀 전체로 확대한다. 아울러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안정적 국내



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단상 위 왼쪽에서 2번째)이 2월 8일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을 찾아가 영주귀국한 고령의 사할린동포를 위문하고 설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2~3세 모국 방문 사업, 사할린동포법 제정 기념사업 등도 추진한다.

재외동포청 추천 도서

눈꽃 같은 사람들

최정학 집필 / 연수문화원 발간

인천시 연수구 연수문화원이 구내에 거주하는 사할린 한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눈꽃 같은 사람들’을 최근 발간했다.

책은 인천 연수구에 사는 사할린 한인 5명의 생애와 이주 이야기를 구술 채록한 것이다. 사할린은 일본 홋카이도 북쪽에 있는 섬으로, 한인들은 1800년대 일자리를 위해 이곳으로 이주를 시작했다. 이어 1900년대 초반 일제가 강제노역을 시키기 위해 한인들을 이곳으로 대거 이주시켰다. 1945년 광복 이후 4천여 명의 사할린 한인들이 국내로 귀환했는데 현재는 2천690여명이 생존해 있다. 이 중 80여명이 연수구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에서 지낸다.

연수문화원은 사할린 한인들의 문화와 삶을 이해하고 아카이브로 만들기 위해 이 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집필자 최정학 작가는 발간사에 “긴 시간 구술에 참여해주신 다섯 명의 어르신과 면담 선생님들, 연수문화원에 감사드립니다”며 “작은 이야



기가 모여 하나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책을 통해 연수구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나아가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책은 비매품으로 실물은 연수구 내 관공서·학교·도서관 등에서 볼 수 있다. 지역학 관련 연구·학습 등 필요에 따라 연수 지역학 아카이브(www.archivecenter.net/YeonsuArchive) 사이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중국 선양서 '무오 독립선언' 105주년 기념식 열려

일제 강점기 중국 동북 지역에서 낭독된 '무오 독립선언' 10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1월 19일 중국 라오닝성 선양에서 열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선양협의회 주관으로 한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독립 선언문 낭독, 만세 삼창, 독립군가 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박영완 민주평통 중국지역회의 부의장은 “우리 민족에게는 국난이 닥쳐왔을 때 뚝뚝 뭉쳐 어려움을 극복하는 DNA가 있다”며 “100년 전 항일 독립 투쟁에 나섰던 선열들의 뜻을 이어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족 화합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무오 독립선언은 조소앙, 신채호, 안창호, 김좌진 등 해외 활동 독립운동가 39인이 1919년 2월 1일 지금의 중국 동북 지역인 만주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 시기와 장소는 규명되지 않았다. 무오 독립선언은 같은 해 일본 도쿄에서 이뤄진 2·8 독립선언과 서울 태화관에서 낭독된 3·1 독립선언에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파주시 중앙도서관,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기록사업 시작

경기도 파주시 중앙도서관은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이주했던 한인 동포의 삶과 애환을 기록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파주시에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140여 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1940년대 전후로 출생한 고령층이다. 이에 시는 그들의 역사, 생활상 등을 파악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 이번 기록사업은 중앙도서관에서 양성한 기록활동가를 구술대상자와 일대일로 연결해 채록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성을 갖는 사진과 서류 등 기록물을 수집해 기록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서병권 중앙도서관장은 “이번 기록 사업으로 잊혀진 사할린 한인 동포들의 삶을 재조명해 시민과 공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사할린 동포들의 정주 의식을 고취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월곡고려인문화관, 최재형 유물·민속자료 보강 특별전

광주 고려인마을 산하의 월곡고려인문화관은 독립운동가이자 고려인 민족지도자였던 최재형 선생 관련 자료와 민속자료 등을 보강한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관 2주년 기념 전시로 고려인 사회의 단합, 교육과 계몽, 독립운동, 의병 활동 등에 앞장섰던 최재형 선생 관련 유물과 설명자료 등을 추가해 새로 선보인다. 또 1937년 옛 소련의 강제 이주로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진 고려인이 지켜온 전통문화와 음식·돌·훈인·환갑 등 세시풍속 관련 사진과 서적 등을 모아 소개하는 전시실도 마련했다. 김병학 문화관장은 “국내에 정착한 고려인 차세대들에게 자기 뿌리를 알려주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유물을 계속 보강해 잊힌 고려인 역사 복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와 동포 연구 MOU

세계한인회총연합회(세한총연·회장 심상만)는 2월 7일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소장 이진영)와 동포사회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동 학술행사 개최, 상호 교류 협력, 소장 자료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K-학술 확산 사업과 한국형 온라인 강좌(K-MOOC)의 동포 관련 콘텐츠 활용 및 홍보 등에도 함께한다. 이들 기관은 2022년부터 ‘한인회 공공외교 활동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고, ‘한인회 공공외교 활동 가이드북’도 발간했다.



차세대에게 한국어, 한국문화를 심어주는 일이 왜 중요한가

재외동포 차세대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심어주는 것은 한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한국어는 우리가 소통하고 생각을 나타내는 수단이며, 한국문화는 우리의 가치관과 전통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전승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다.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아를 강화하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된다. 두 개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 차세대는 자신의 출신 국가와 연결성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한국어를 유지하고 구사함으로써 자기 뿌리를 느끼고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가족과의 소통도 강화된다. 부모와의 언어 및 문화적 이해는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공통된 경험과 관심사로 더 깊은 이해와 친밀감을 만들 수 있다. 부모와 언어 및 문화를 공유하는 것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한국 사회와의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문화적 유산을 지속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차세대는 수많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면 문화적 유산을 전달받을 수 있으며,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국적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품고 소중히 여길 수 있다.

한국어는 세계적으로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어 능력은 취업 기회를 확장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며, 한국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기회에 접근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국제적 영향력을 향상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문화적 이해와 존중이 필수적이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유지함으로써 다양성을 증진하고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자국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상호작용과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최근의 한류 열풍은 한국문화와 K-POP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세계와 연결되는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됐다.

이런 이유로 차세대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심어주는 것은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며, 글로벌 시대에 세계와의 연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중요한 큰 역할을 한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차세대에게 문화적 유산을 이해하고 이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장**



박영희
남미대륙한국학교협회회장



※ 기고자의 주장이나 의견은 재외동포청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 모집

4월 30일~5월 3일 서울·지방서 개최



재외동포청은 오는 4월 30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서울과 지방에서 열리는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대회는 세계 각국 동포 차세대 리더들의 역량을 키우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분야의 인재를 초청하는 행사다.

참가자는 만 25~45세의 재외동포 중에서 70명을 선발한다.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며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정치·경제·법률·언론·문화예술·국제기구 종사자, 지역별 우수 차세대 단체 또는 전문가 단체 임원, 공관 추천을 받은 자 등이 대상이다.

참가자들은 대회 기간 한국의 발전상 알리기 등 재외동

포 정책 사업 소개 기조 강연을 듣고 정부 주요 기관 예방, 한인 정체성 함양 및 주류사회 진출 경험 공유, 지역별·분야별 네트워킹, 산업시찰 및 모국 문화 체험 등에 나선다. 신청 마감은 2월 29일이며 선발 결과는 3월 15일에 공지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자에게는 왕복 항공료 일부와 행사 기간 숙식 등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oka.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들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인재”라며 “대회에서 주류 사회 진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 세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개인의 발전은 물론 동포사회와 모국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장 동정

- 2월 21일: 한베가족협회(한국베트남가족협회) 청사 방문
- 2월 22일: 2024 국가브랜드업 전시회 개막식 참석
- 2월 23일: 파독 근로자 민생현장 간담회 참석
- 2월 26일 ~ 3월 1일: 미주지역 동포간담회 참석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